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축사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오늘,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의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기념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님, 하르무트 코쾅 의원님,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님들께 감사드리며, 이해정 센터장님을 비롯한 주한독일문화원 대전분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의 개원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독일 정부와 충남대학교의 인연은 독일문화원 설립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979년 8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충남대학교와 독일 기술협력공사 간에 공업계 교원양성 교육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이 시행되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재들의 독일어 교육을 위해서 1988년 10월, 충남대학교 내에 주한독일문화원의 어학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11년과 2016년 충남대학교와 주한독일문화원이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독일문화원은 전 세계적인 독일 문화정책의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지역적 연결고리로서 대전 및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독일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은 지금까지 1만여 명의 수강생들을 배출하였고,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모범적인 한-독 문화교류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한독일문화원 대전분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충남대학교와 독일문화원의 상호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협력관계가 한국과 독일의 우호 증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한독일문화원 대전 분원의 개원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이만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충남대학교 총장 오덕성